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SBA 서울어워드 컬렉션 존./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신세계면세점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인천국제공항에 'SBA 서울어워드 컬렉션 존'을 새로 구축하고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체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3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인천공항점 1터미널에 있는 'SBA 서울어워드 컬렉션 존'은 300여개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연 2회 상품 품평을 통해 패션, 리빙, 반려 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발굴해 판매한다. 지난해 SBA 시범 사업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에 입점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캐릭터 상품과 '킴스미(KIM'S MI)'는 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상품 5종으로 시작해 입점 상품을 100여종으로 확대했다. 킴스미는 한국 전통 그림을 강조한 기념품으로 월 매출 약 1만달러를 올렸고 불가리아, 미국 등으로 수출 계약도 성사했다.양사는 올해 면세 구역 내에서 물류를 비롯한 각종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특화 상품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내 '서울 어워드 샵' 입점 기회도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이나 관심 분야 지원 사업도 모색한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에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신세계면세점은 킴스미와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중소기업들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